

지역 메아리

완주군 경천권역 노인 복지요구 조사

완주군 경천권역(경천·운주·화산) 및 송흥복지팀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복지요구 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완주군 경천면에서 따르면 이번 요구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첫걸음인 복지상담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대상 등 2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권역내 복지담당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방문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는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며 설문지 문항은 어르신들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여가 등 56문항으로 이뤄졌다.

완주군은 추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5억 6500만원 확보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는 2018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국비 5억6,500만원을 확보해 국가하천 제방 보수, 정밀점검용역, 유지보수 사업 등에 탄력을 받고 있다.

11일 김제시에 따르면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내 노후화된 제방 보수와 포장 및 사리부설,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김제 시민에게 제공하고 특히 하천제방 16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엔 확보한 5억6,500만원 중 3,500만원은 사업추진이 우수하여 인센티브로 확보한 금액으로써 하천정화 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정부서비스 목록 점검 회의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실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의 중복성 제거와 주기적 관리·표출 개선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서비스 목록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 24 공공서비스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공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김제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500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제시 소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각 부서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 서비스 목록 정비요령과 자료의 현행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컨설팅

군, 킬러 콘텐츠 강화·축제장 공간컨설팅 집중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킬러 콘텐츠를 강화, 공간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완주군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는 제8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 컨설팅은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완주군의 대표 축제인 와일드푸드축제를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진입시키기 위한 킬러 콘텐츠 강화 및 축제장 공간컨설팅에 집중했다.

이날 참석한 이영민 문화공방DKB 대표는 "산과 물이 좋은 와일드푸드 축제장에 생생한 자연과 버무러지는 대지미술이 활용되면 좋겠다"며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축제에는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참여와 운영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나 컨설팅에는 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완주군의 감점인 주민역량 강화의 모체인 중간지원조직들이 함께해 컨설팅 내내 운영자와 기획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했다.

김현아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팀장은 "축제의 주제를 살린 와일드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킬러 콘텐츠를 강화하고, 공간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드한 다문화 음식체험시 어른보다는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높았다"고 전했다.

류연경 전주대 교수는 "와일드음식 코너에는 올해의 와일드 푸드 선정 스티커를 비치해 매년 대표 와일드푸드들을 선정하는 등 관광객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찬운 전라북도 관광산업팀장은 "주민 참여도 돋보이지만 지역공동체

육성 전문가인 중간지원조직들의 연계로 촉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명절이후 먹지령 보다는 농지형 프로그램 기획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와일드푸드축제는 천렵과 화덕 체험을 대표로 추어와 향수, 건강한 음식과 야생 체험을 주제로 4년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30일까지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김제시의회의 결산 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예산편성·집행에 활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위원으로는 김경숙의원(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이 대표위원을 맡게 되었으며 임석택·이원섭(전직 공무원) 3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게 된다.

올해는 결산서 서식 상 오류 등을 정비하고 기금결산서를 결산서 본문에 통합하여 실질적 통합결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초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교육을 이수하여 체계적 감사기법으로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출납폐쇄기한인 지난 연말부터 각 부서에 결산자료

작성방법 등을 교육·안내하고 결산서 작성 시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결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김제시는 결산 검사가 완료되면 결산감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결과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운영실태와 성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성실한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호응'

완주군, 부부간 의사소통·생활정보·자녀교육 등

부부간 의사소통, 생활정보 안내, 자녀교육까지 이뤄지는 완주군의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가 결혼 이민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김양이 센터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는 한국말과 한국문화가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관계향상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에는 베트남어, 중국어통번역지원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600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부간 의사소통, 입국초기 상담,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생활정보 안내, 자녀의 교육과정 통역지원 등을 센터 내방 및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 사법기관 및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이용 시 동행통역, 취업 관련 통역, 긴급위기상담 및 긴급 지원 서비스 등에 관련된 통역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번역서비스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기관 등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1-1033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윤수봉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군의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윤수봉(46) 완주군의회 하반기 운영 위원장이 11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의원(가산거구 삼례, 이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윤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완주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군민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 더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고 소회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확정, 혁신도시 문화체육

센터·청소년문화의집 건립확정,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 및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군 2의 성공을 위해 혁신도시내 공공도서관과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청소년문화의집 완료, 농민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토피야 정책 적극 추진,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15만 자족도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벼 농작물 재해보험 80% 지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많은 농가가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기간 3. 20. ~ 6. 29.)하기를 희망한다고 11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이앙불능, 경작불능,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농가에 대해 5%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특약가입 시 보장되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2종을 추가해 모두 6종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김제시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의 80%(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하며 2017년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전체면적 2만368ha 대비 1만2,398ha (4,056농가)로 전복(61%)에서 가장 많이 가입했고 151농가가 3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